

아·름·다·운
삶·사람

/category/bosal.asp

현대불교 buddhanews.com

서기 2006년 6월 7일 수요일 (주간) 제 581호

17



오아시스 레코드 **손진석** 사장

팔순을 앞둔 나이에도 꾸준히 배우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손진석 사장의 힘은 정직한 사람으로 살기 위한 부단한 노력에서 나온다.

“팔불출만 알면 즐거운 인생”

“팔불출(八不出)의 뜻을 아십니까?
불교와의 인연을 질문하는 기자에게 오아시스 레코드사 손진석(79) 사장은 되레 질문을 던진다.
“마누라나 자식 등 가족 자랑이나 늘어놓는 모자란 사람”이라 대답하니 손진석 사장은 “국어사전에서는 그것만 나오는데 ‘팔불출’ 안에 진리가 다 있다”는 답변이다.

“팔불출의 뜻을 불교사전에서 찾으니깐 더 깊어요. 뭐냐, ‘불생불멸(不生不滅) 불거불래(不去不來) 불일불이(不一不異) 부절불상(不絕不常)’, 이 여덟 가지를 못 하기 때문에 ‘팔불출’ 이라는 겁니다. 이 여덟 가지를 바로 불교의 진리이자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법문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나고 말하는 것도, 오고 가는 것도, 하나도 다른 것도, 끊어지거나 항상하는 것도 없다는 ‘팔불’은 <중론>에서 설한 진정할 공(空)의 세계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손진석 사장이 처음 불교를 만난 것은 사할도 아니고 주변인들의 권유에서도 아니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음반회사를 하다보니 긴급 조치 위반으로 서대문형무소에 구속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이죠. 그때 7개월 20일 동안 감옥 살이 하면서 불교서적들을 만났어요.” 그렇게 시작한 불서와의 만남은 여든을 눈앞에 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무실 곳곳에 손때 묻은 <육조단경> 등이 평소 그가 읽었던 자취를 남기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딱 나를 위한 것 같아요. 불교는 정확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이죠. 의문을 가지면 답을 줘요. 기복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복은 안돼요.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알고 믿어야죠.”

책을 통해 불교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이론적으로 알면 알수록 불교는 무궁무진한 재미를 안겨줬다. “어떤 일본인이 쓴 책을 보니까 ‘불(佛)’은 곧 ‘마음(心)’이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에 이를 깨달아 아는 것이 ‘부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경주에서 태어난 손진석 사장은 초등학교부터 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수재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8회 졸업)한 손진석 사장은 과대표를 시작으로 단대학생회장, 총학생회장, 전국학생회장 등을 모두 휩쓸기도 했다. 일제시대에 태어난 탓에 고생도 많이 했다. 초·중교는 일본인 선생 밑에서 일본의 역사와 말을 배웠다. 내 나라 역사를 일본의 역사보다 모른다는 자책감도 있어 더욱 책을 열심히 봤다. 간도에 건너가서 학교를 다닌 시절도 있었다. 한때 부산에 기거하며 부산사범을 다니기도 했다. 여러 곳을 다녀서인지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를 한다.

“외국어라는 것이 말을 안 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단어라도 안 잊어버리려고 말 하는 중간 중

간에 영어 단어를 섞어서 말하죠. 중국어는 새로 좀 공부하려고 했더니 운통 약어들이 많아져서 헷갈라졌어요.”

나이를 잊은 학구열이 대단하다. 불교서적들도 한국어로 읽어 가리지 않고 읽는다. 기자와 만난 날도 <아마토(야마토) 여군사전> 등의 책 선물을 받고 눈길을 떼지 못했다. 일본인이 썼다는 <대무량수경> 읽은 얘기를 하면서 손진석 사장의 얼굴은 환한 웃음으로 가득 채워진다.

그가 만들어낸 불교음반은 송춘희 찬불가를 비롯해 영인 스님 엽불 시리즈, 박범훈 장차불교음악 시리즈, 영산회상곡, 참선 명상의 말씀, 이차돈의 하늘 등 다양하다. 얼마 전 오아시스 레코드는 불교계 불

사단체 무량회의 음반을 만들었다. 단순히 음반만 제작한 것이 아니다. 작곡을 맡은 이동훈 작곡가에게 불교음악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 불교음악을 한 아홉 안겨주고 교육도 시켰다.

“새벽 6시에 출근하자마자 2-3시간 동안 무량회 음반을 계속 들었어요. 작곡이 너무 좋아요. 불교가 음악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진석 사장의 사무실에는 동자승 그림이 걸려있다. “예전에 진관사에 가서 찾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표구도 되지 않은 채 놓여 있더군요. 그림에 쓰인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왔죠.”

그림 얘기가 나오기 무섭게 발뽀 일어나 직접 그림의 문구들을 가리키면서 일일이 설명해준다. 그림에는 ‘말이 화살같이 나가는데 가뱀이 가는 것은 안 된다. 한번 사람 귀에 들어가면 힘이 있어도 빼내기 어렵다’는 문구가 써 있었다. 손진석 사장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그림에 쓰인 글을 읽는다.

이 그림이 간직된 인연은 이게 끝이 아니다. “법패하는 법진 스님이 녹을 때문에 왔는데 당신 그림이라고 하더군요. 인연이 참 대단하죠?”

그가 전하는 에피소드 하나. 화두를 처음 접했을 때의 이야기다. “한자로 ‘話頭’라고 쓰잖아요. 처음엔 책 서문을 말하는 건줄 알았어요. 화두에 대해

여기 저기 많이 물었는데 내 맘에 딱 떨어지는 대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이후에 성철 스님 책을 보니까 ‘이뻐’고 ‘What is this?’가 나오더군요. 성철 스님 책을 보면서 많이 배웠죠.”

손 사장은 불교TV 강의는 빼놓지 않고 본다. 잘하는 강사를 메모해뒀다가 그들의 강의는 꼬박꼬박 챙겨들어와 직성이 풀린다.

손진석 사장이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디딘 곳은 레코드 원료를 수입하던 무역회사였다. 여기서 오아시스 레코드를 인수했고 그 때부터 오아시스는 손 사장의 뜻이었다. 음반 계약을 위해 인도도 미국으로 영국으로 전 세계를 발아래 두고 열심히 뛰던 시절이었다.

“당시 영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영문학 전공에 미군부대 연락장교로 복무하면서 영어에 익숙해했던 저였습시다. 덕분에 EMI나 워너 뮤직과 직접 계약해서 음반을 냈고 회사를 살려낸 거죠.”

일제시대부터 있던 레코드사에서 남아있는 것이 이제 오아시스 한 곳 뿐이다. 50년동안 사장으로서 이끌어온 오아시스는 민요나 창 등 민간문화재들의 음반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서정주 시인이 어느 글에서 ‘때 되면 오는 것이 죽음’이라고 했어요. 이제 힘이 좀 든 것 같은데 험들자 죽을 때라더니 딱 그렇네요. 하하하”

손 사장은 ‘즐겁게 살자’ 주의자다. 짧은 인생 우거지상으로 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잘 웃는다. “생전의 한 마디가 사후의 열 마디보다 낫다”는 것을 강조하는 손진석 사장의 경영철학은 “정직한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직원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말한다.

“이 세상 60억 인구 중에서 ‘나’는 오로지 하나 뿐입니다. 인간뿐이 아니에요. 모든 생물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그 생체 하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도 없으니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손진석 사장의 말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떠올리게 했다.

글=강지연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식지않는 학구열, 경전·불서 읽으며 마음 다스려
한국 음반업계 산 증인... 해외시장 직접 개척
‘정직’과 ‘필요한 사람되기’ 경영철학 50년 지켜
“돌도 없으니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조계종 준중특별교구와 현대불교신문 공동 캠페인
‘2006 군포교 합시다’
찬불가 반주기 군법당에 보내기

우리의 불자 장병들이 활력 있고, 보람찬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합시다!!!
군대에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장병들이 “찬불가-하나로반주기”로 찬불가를 배워 신병생활의 기쁨과 성불의 연을 맺게 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과 이동이 간편합니다.
법회의 설비용 앰프로 사용이 가능하며,
군부대 위문 공연과 경로위원장치 등 각종 사찰행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교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어린이도 찬불가 등요와 법회 의식곡 등을 쉽게 배울 수 있고 신도님들도 찬불가 가요를 송년회, 친목회, 지역법회 등의 다양한 포교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외행사에서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간편한 이동과 고출력의 웅장한 사운드로 군법당이나 사찰의 야외 법회나 행사용으로 제격입니다.

■ 제품사양

- 출력 : 100W+100W 소비전력 : 350W
- 입력전압 : AC 220V 전용 50/60Hz
- 사이즈 : 64.5(가로) x 67(세로) x 150(높이)Cm
※ 모니터 포함
- 모니터 21인치(완전 평면) 마이크 2개(5m), 리모콘 포함
- 일본곡 23,000곡 이상 내장 ※ 찬불가 120여곡 내장

현대불교와 풍경소리가 함께하는 “찬불가-하나로반주기” 보급 캠페인에 참여합시다.
풍경소리에서 제작한 법회 의식곡 / 찬불가 가요 / 찬불가 동요 120여곡 추가 내장

찬불가 하나로반주기 구입 및 문의 02)2004-8207, 8210 (현대불교 영업2팀)